

현대 상업공간 실내에 나타난 설치적 오브제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Installation object Appeared in Interior of contemporary Commercial Space

김기영* / Kim Ki-Young

김문덕** / Kim Moon-Duck

Abstract

Installation art in 20th century shows an expanded trend as a result of material, time, or spatial expansion of subject, therefore subjects could be either materials or non-materials. This trend says that three elements-objet, space, and spectator-is inseparable essence of installation art. Nowadays, the borderline between installation art and everyday human life is getting indistinctive, and both installation art and human life are becoming a part of another. By adapting the flexibility of installation art into the interior space, more interaction could happen, therefore, people will recognize spatial and visual character of interior space as a visually satisfying installed objet.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hanging of spatial composition in consequence of expressional variety as a result of dispersion of spatial elements. Especially, this study gives a fundamental ideas about private character of installations art in commercial spaces and expressional character of modern installations.

키워드 : 설치미술, 오브제 표현특성 실내디자인 상업 공간

Keywords : Installation art Commercial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0세기 설치미술은 오브제의 개념과 대상 확장에 영향을 받아 물질적, 비물질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확장된 경향을 보이며, 이것은 오브제 공간과 작품 그리고 관람자를 결코 떼어 놓을 수 없는 필수 조건으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일부를 작품의 구성 요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상과 그 공간의 점유라는 점을 설치미술을 시작으로 보고 설치(Installation)에 내재된 의미의 확장 가능성을 실내건축 공간에 적용하여 설치함으로써 인간지각에서 느끼는 다양한 체험요소로서 설치미술이 가지는 의미관계 연결유형을 알아보고, 설치된 오브제의 공간 형태상의 특징에 주목하여 이를 설치적 오브제 개념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새로움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에게 시각적인 만족감을 주며, 예술적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을 지닌 물체로서 작용되며, 확장된 공간적 특성으로 각공간의 구성요소들로 분산되어 나타나는 표현의 다양성에 따른 공간구성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특히 상업 용도의 실내공간에서의 설치미술은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점, 유행과 소비적 성격으로 비교적 소규모의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 등에서 실험적인 시도와 모색이 용이하다. 이러한 현대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실내공간에서 설치적 오브제의 표현특성을 연구, 분석하여 새로운 실내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 있어 설치적 오브제의 공간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현대 미술의 오브제를 포함한 건축에까지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설치미술과 오브제의 개념이 시작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설치적 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상업 공간 실내에 나타난 설치적 오브제의 작품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조형예술에서 나타난 오브제의 발생 배경과 현대 미술에서의 오브제 개념의 확장에 대해 연구한다. 3장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작품을 근거로 공간에서 나타나는 확장된 오브제 요소와 오브제적 공간구성의 표현특성, 오브제로 인한 행위와 관계특성을 추출, 분석의 틀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현대 상업공간의 실내에 나타난 설치적 오브제의 표현특성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특성과 흐름을 도출한다.

* 정희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석사과정

** 명희회장,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건축학박사

2. 설치적 오브제와 공간

2.1. 설치미술의 이해

(1) 설치미술의 개념

설치미술(Installation)이란 근본적으로 장치(裝置), 가설(架設)의 의미를 가진다. 즉 행위를 취하는 주체의 대상 즉 오브제를 특수한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여러 가지 사물들을 결합하여 어떤 공간 속에 사물을 놓음을 의미한다. 설치 미술의 영역은 사물, 객체의 의미를 가진 오브제에서부터 빛, 소리, 물, 바람, 공기 등 자연경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로 구성되는 관객 주위의 환경을 배경으로 환경 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한다. 설치라는 환경미학은 총체 예술로서의 방향 모색과 함께 인간의 감정을 시화시키는 모든 조건까지 동원하며, 이것은 시각예술의 범주에서 탈피하여 듣고, 말하고, 만지며 냄새까지도 맡아보는 삶의 현장 그 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場)으로서의 설치미술의 그것은 개개의 물체가 부분이 갖는 의미보다 구조화된 공간 전체가 드러내는 종합적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전체성을 지닌 “총체 예술(Total Art)”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설치미술은 오늘날의 다양한 표현매체와 양식의 자유로운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첨단적인 미술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으며, 보다 확대된 현대미술의 시대적 산물으로써,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2) 설치미술의 전개

현대미술에 있어서 커다란 변혁은 장르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회화에서의 액자틀의 제거, 조각에서의 좌대의 이탈, 연극에서의 무대의 거부, 또는 무용에서의 일상적인 동작의 도입 등은 기존의 관습에 대한 부정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미술에서 기존형태의 거부는 반 예술로 이어지면서 현대미술의 다양성은 세잔(Cezanne)의 전통회화의 회의적 사고와 함께 시작되었고, 제제와 공간의 개방화는 그 상당부분이 입체주의가 콜라주(Collage)¹⁾를 창안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조형이념으로부터 회화 평면 속에 실제사물을 부착시키는 파피에콜레(Papier-colle)²⁾와 콜라주 양식이 탄생되고, 서서히 회화와 외부세계와의 역학적 구조가 새로운 조형공간으로 등장하게 된다.

20세기 미술에 보다 가까운 통합적 해결의 선구자는 콘스탄틴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로 1937년 무심한단(無心限

壇, endless column)을 하나의 조형적 형태로 바꾸어 비대상 영역의 설치가 현대적 양식의 설치미술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뒤상과 라우센버그³⁾, 안드레를 통해 ‘상황’과 ‘환경’까지, 또는 가구가 조각이 되는데 까지 발전한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인간존재의 상실을 초래하였으며, 반(反)예술운동인 다다이즘에서는 사물에 부여된 기존의 가치개념이나 유용성에서 탈피하여 부정의 미학으로 선택되어진 사물과 무작위(無作爲)로서의 사물을 등장시켰다. 1931년 뒤상(M. Duchamp)은 창조행위의 허무성을 표출시키는 방법으로서 레디-메이드(ready-made)인 변기를 전시하고, 그 사물 안에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여 예술 작품으로 전화되는 현대미술의 향방에 중요한 고리를 제공하였다.

설치의 유형은 1938년 파리에서 열린 ‘초현실주의 국제전’과 뒤상의 작업에서 보여준 오브제 설치로, 3차원의 플라주의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1912년에서 1922년까지 다다운동⁴⁾이 현대미술의 본류로 군림하게 되었다. 다다운동과 초현실주의에 가담했던 슈비터즈(Schwitters, Kurt)는 재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상들을 앓쌍블라주로 해석해냄으로서 삶과 미술의 통합된 관심을 표출하고 있고 공간을 전체적 상황으로 장식하여 스스로 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가하고 있다. 생활과 예술사이의 거리감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한 슈비터즈는 그의 작품



<그림 1> 메르츠 바우, 1920

<메르츠바우>에서의 그가 즐겨 사용하는 소재들인 사진, 인쇄물, 모조품 등을 집합적인 관계로 회화 공간에 표현한 것으로 재료와 형태를 하나의 예술로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작품으로 본격적인 의미로서의 설치미술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설치미술에서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것은 오브제의 기용이다.⁵⁾ 설치미술은 오브제 출현과 미술영역 확대으로써 행위성이나 환경의 개입으로 모든 것이 합체되는 총체 예술로 발전하게 되며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미술의 한 양식으로 70년대부터 조형적 의미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현대미술에서는 최근 다양한 소재와 미디어를 이용한 탈장르, 복합적인 표현방식이 증가하고, 실험정신이 내재된 설치미술은 오브제, 환경의 장, 참여와 상호작용,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새로운 미학적 가능

1) 콜라주(Collage) ; 사전적 의미는 인쇄물 오려낸 것, 눌러 말린 꽃, 형질 등을 화면에 추상미술의 수법이나 그 작품을 의미, 또한 갖가지 단편의 모임을 의미, 붙여로 Colle는 붙인다. 결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2) 파피에 콜레(Papier colle) ; 종이 따위를 찢어 붙이는 기법으로 콜라주의 일종으로써, 이 수법을 최초로 쓴 것은 종합적 입체파 시대의 브라크와 피카소였으며, 현대미술이 처음으로 물체와 만난 예라고 할 수 있다















3) 뒤상은 브랑쿠시의 아이디어(지지체)를 레디메이드(ready-made)에 적용했는데 비해 라우센버그는 회화에 브랑쿠시의 원리를 도입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의 “결합”은 앓쌍블라주란 용어로, 그림과 오브제를 실제 생활 영역에까지 확장시켜 상호를 ‘혼성’ 하고 ‘결합’ 시킨 나머지 실생활 공간자체를 오브제화 하기에 이르렀다는 데서 ‘환경’ 과 ‘상황’ 극적장면, 스펙터클”의 유형이 탄생을 보게 된다.

4) 다다운동 ; 입체주의 붕괴에서부터 쉬르레알리즘(초현실주의)의 등장까지의 사이에 전개, 입체주의로부터는 파피에콜레 기법을 채용, 그것을 자기의 목적에 맞추어 일반화하였다.

5) 서성록, 설치미술 감상법, p.11

성을 열어주고 예술과 삶, 일상생활과의 간격을 좁히고 더 나아가 일원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시공간적 상황 속에서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표 1> 연대별 설치작가 대표작품

작가/연대	대표 작품	작가 /연대	대표작품
폴 세잔 /1839 - 1906		콘스탄틴 브람쿠시 / 1876 - 1957	
	사과와 오렌지의 정물화 / 1900년		공간속의 새 / 1927
마르셀 뒤상 /1887 -1968		리우센 버그 / 1925-	
	샘 / 1917		침대 / 1955
칼 안드레 / 1935-		에두아르 키엔홀츠 / 1927 -1994	
	구리-알루미늄 평원 /1969		The Birthday / 1964
클래스 올덴버그 1929-		앨런 카프로 1927-	
	빨래집게/1976		해프닝 '가스' /1966
짐 다인 /1935		토니 그랙 /1949	
	색채의 전율 / 1985		분비물 /
요셉 보이스 /1921 -1986		제니 홀처 / 1950-	
	Das Ende des 20 / 1982-83		Gatshead / 2000
한스 하케 /1936-		조나단 보르프스키 / 1942-	
	Condensation Wall 1963-1966		Man With Briefcase / 1987

2.2. 설치미술과 공간

(1) 설치미술의 공간성

공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체와 그것을 지각하는 인간과의 상호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장소인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공간 그 자체와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은 조형의 형성과 정신이 일치되는 장소이며, 공간의 본질, 그것을 규정짓는 모든 요소의 환경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해 성립된다.⁶⁾ 그러므로 설치미술에서 그 조형을 형성해가는 근본적 요소는 공간이며 현실과 공간의 만남이 설치미술의 가장 중요한 표현 매체가 된다. 이러한 설치미술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일정 기간 설치되었다가 철수되어 사진이나 기타의 기록만을 남기고 사라지는 일회성을 지닌다. 영속성을 지녀야 한다는 전통적 예술 관념으로부터 탈피하여 확장된 공간을 조형화 하려는 의식의 침투현상이다. 둘째로 모든 작품의 선정에서부터 그 구조적 완결까지 자의적 배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작업실 내에서 작품이 완성되지 않고 외부 조건과의 창의적 접촉이 전제되어 작품의 장소선정과 그 구조적 완결까지 현장을 위주로 조형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설치미술은 전시공간을 확장된 종합적인 공간으로 형성해 나간다. 오브제의 확장을 통해 작품이 단순히 공간에 놓이는 오브제의 형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공간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설치미술은 1차적 표현매체가 공간이며 오히려 재료나 기법, 형식 등은 2차적 요소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설치미술은 오브제의 물질성과 그물질이 작용하는 공간과의 긴밀한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설치미술의 공간 연출의 이미지는 작품과 환경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의해 관객의 창조적 감각을 자극하고 그의 행위도 전체 작품의 일부로 수용되는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산재적이면서 예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환경은 대중과 예술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커뮤니케이션⁷⁾의 장으로서 환경의 변화를 준다.

(2) 설치적 오브제의 공간구성

현대미술에 있어서 설치미술은 인간의 원초적 조형의식의 흐름과 미술이 환경적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설치미술에서 나타나는 공간 표현특성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대 실내 공간에 나타난 인스톨레이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이재석, 2001)'에서는 설치미술의 공간표현특성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예술 공간과 일상 공간의 결합

예술의 기원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비롯되었다. 인간은 자신들의 감정을 시와 노래, 춤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굴벽화를 그리기도 하면서 그 생활과의 깊은 관련 속에서 예술

6)이주은, 설치미술의 매체적 특성과 소통에 관한 연구, 인하대, 2000, p.22

7)정보교환, 의사소통, 감정교류라는 본질적인 기능의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합시키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를 예술적 지적활동의 관점으로 볼 때, 현대예술은 직접 인간의 감성에 작용하여 목적 있는 반응을 유발하는 대중커뮤니케이션의 힘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를 유기적으로 재조직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예술과 일상생활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설치미술은 플라양식에 의한 설치환경의 외연으로서 관람객과 무대로 설정되는 공간 또는 시간적 상황 그리고 행위적 요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술과 복합적으로 결합시켜 놓은 일종의 환경화된 예술형식임을 알 수 있다.

② 오브제의 해체와 연출

기존의 가치개념이나 평면성에서 벗어나 부정의 미학으로 선택되어진 오브제는 앳쌍블라쥬, 컴바인 등을 거치면서 단순히 평면에 부착되는 오브제에서 3차원적인 오브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사물과 공간의 연결을 의미하며, 미술이 전시장이나 박물관에 고정되어 절대적 가치를 구축하는 염원은 이제 낡은 관념의 예술로 치부되어 버렸으며, 새로움을 향한 창조적 영감을 현장감 넘치는 실제의 공간으로 넓혀갔다.

이러한 공간의 개념은 실내와 실외의 공간에서 주어진 환경적 구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설치하는 형태로 나타나 새로운 조형적 공간을 제시하였다. 이는 앳쌍블라쥬에서처럼 단지 오브제들의 집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조건의 집합에까지 동원되었으며, 오브제는 그것이 놓이는 '장'과의 관계에서 파악되고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다.

③ 관객과 사물의 결합

현대에 있어서 조형작품은 단지 보기 위한 예술에서 참여예술로 변화되어 왔다. 대중의 참여는 작품의 예술 가치와 그 기능을 실현하며 대중은 작품 속에서 작품과 일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설치미술의 주요한 영역으로 1950년대 말 몇몇 젊은 작가들이 연극적 이벤트와 해프닝으로 눈을 돌렸는데 다소 연극적인 요소가지를 끌어들이는 행위로 존재한다. 이러한 행위는 성실성을 거부하고 기존의 문화의 추종을 반발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표현을 중시하고 시간과 장소에서 인식되고 공연된 사건의 조립으로 정의된다. 대중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예술에서의 행위적 요소를 강조하고 예술작품과 접촉하는 직접적 체험으로 요구한다.

3. 현대 실내공간의 설치적 오브제 표현특성

3.1. 설치적 오브제의 상징적 특성

(1) 물질적 특성

현대 실내디자인의 새로운 전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오브제의 표현특성 중 하나는 재료의 부각이다. 이는 오브제의 객체 특성 즉, 형(形), 색(色), 재질 등을 중심으로 이용하거나 오브제 자체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이용해 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 오브제 자체의 특성에 집중하는 접근방법이다. 재료가 공간의 배경이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요소로 대두되면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공간적 패러다임을 표현하고 동시에 재료의 무한한

표현 가능성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 창출의 표현매체가 되고 디자인의 차별성의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징적 요소로서의 오브제는 시심상(視心象)적이고 비언어적이며 유추적 창조과정이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의 핵심적인 요소로 역할을 하며, 디자이너와 사용자간의 강한 정서적 인터랙션이 작용하는 시각적 감흥을 제공한다.



<그림 2> 김부곤 / 청국



<그림 3> 정기태 / 차이(差異)

김부곤의 <청국>과 정기태의 <차이(差異)>는 전통재료와 요소의 사용으로 공간에서 소비 이미지, 상품의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현대 실내디자인에서 오브제는 공간 사용자와 대화적 매체로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가시적 정보 전달을 위한 시각적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공간디자인을 위한 재료의 표현성은 산업적, 상업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브랜드 이미지로 연결시킨다.

(2) 비 물질적 특성

오브제의 초기 개념은 물질적인 형태로서만 인식되었지만 미술영역에서 나타난 오브제개념의 의미 확장과 공간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의 도입으로, 오브제는 인간을 둘러싼 공간의 빛, 바람, 공기, 색, 소리, 향기 등의 비물질적 요소에까지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공간에서의 빛은 내부 공간에서의 외부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요소이며 외부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특정 지어지는 환경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안톤 프레독의 넬슨 현대미술센터는 자연광을 그리드 형태의 구조체에 통과시켜 공간의 유동적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연출한 사례이다. 또 다른 비물질적 오브제로는 공간에서의 색을 들 수 있다. 현



<그림 4> Nelson Fine Arts Center, Antoine Preddock, 1989

대 공간에서의 색채의 사용은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즉, 상징적 기호로서 색채 요소는 인간의 정서적 심미적 감성에 대응하는 중요한 공간 디자인 요소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태양광이나, 조명의 강약으로 인해 색의 지각적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 기계적 조작에 의해 색이 변화하고 이동하며 공간과 인간, 공간과 공간과의 상호작용성이 나타나게 된다.

3.2. 설치적 오브제의 기능적 특성

현대 실내디자인에서 나타난 오브제는 시각적 유희와 심리적인 즐거움을 주는 특징과 함께 기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간에 포함되는 부차적인 가구나 비품을 예들 들 수 있는데, 이는 신체기관에서 연장된 오브제로 장식예술과 실내디자인의 사이를 보완하는 오브제로 해석할 수 있다.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해체하거나 배치가 자유스러운 것이 특징이며, 시각적으로 조형성이 강조되고 개념적으로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공간에 기능을 포함한 배치와 배열, 구성과 연출로 오브제와 오브제간의 긴장관계의 특성에 중심을 두고 접근하는 조형표현인 집(集), 산(散), 합(合), 틈 사이(間), 등으로 공간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오브제가 외부로 확장하는 관계중심의 원심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오야마의 프라다샵의 경우, 디스플레이 가구와 기능적으로 변형된 벽체, 상징적인 윈도우등의 상호관계에서 공간이 일체화되고 하나의 큰 오브제화된 공간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표현은 신체의 움직임에 근거를 둔 것으로, 우리의 활동구조인 붙잡고, 앉고, 걷고,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 등의 기능적인 것까지 심미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실내 디자인에 반영하여 이미지창출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개념화 하고 적용하고 있다.



<그림 5> Aoyama PRADA /Herzop de Meuron

3.3. 설치적 오브제의 공간관계성

기능과 관련된 실내 디자인의 오브제는 미술에서의 이념적인 배경의 내재와는 달리 오브제를 실내에 도입하고 설치함으로써, 공간에 방향성 및 동선을 유도하고, 공간을 분절 또는 연결시켜주며 리듬감과 통일성을 만들어 낸다. 축은 공간에서 주 공간으로 진입을 유도하는 방향성과 질서 및 통일된 체계를 유지시켜주며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위적 형태를 표현하여 공간의 질서와 위계를 상징적으로 표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오브제의 표현 수단의 확장으로 오브제와 마주하는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오브제의 배치와 중점을 통해 공간의 볼륨을 한정함과 동시에 관람자에게 다시점, 연속성, 비연속성, 역동성을 가지는 공간으로서의 인지를 유발 한다. 홍콩 아르마니 스토어는 길이 105미터의 붉은 리본형상의 오브제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형태의 흐름으로 로비, 라운지, 레스토랑의 영역을 나누었다. 공간들마다의 동



<그림 6> 아르마니 홍콩 /Massimiliano Fuksas

선을 유도 하며, 테이블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이 리본의 패턴은 다시 샵 매장으로까지 이어져 공간속의 오브제로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공간적 장면을 제공한다.

3.4. 소결

<표 2> 설치적 오브제의 표현특성 분석틀

표현 특성	설치미술의 공간특성	공간에서의 설치미술의 의미	설치적 오브제의 표현 유형	
			①물질성	형태, 재료 등의 시각적 특성 중심
상징적 표현 특성	예술과 일상의 결합	객체 특성을 이용한 정보 전달 매개체	②비물질성	빛, 색, 바람, 향기 등의 확장된 개념의 오브제의 특성중심
			③구심적 접근	신체에서 연장된 오브제로 장식과 디자인의 사이를 보완하는 오브제의 객체특성 중심
기능적 표현 특성	오브제의 해체와 연출	기능을 가진 오브제의 배치, 배열을 통한 공간과의 결합	④원심적 접근	공간을 형성하는 오브제들 간의 긴장관계 특성 중심
			⑤공간의 형태	공간의 볼륨을 한정하고 연결 및 분리로 공간의 위계 질서 결정
공간 관계적 표현 특성	관객과 사물의 결합	오브제에 의한 관람자와 공간의 결합	⑥동선 유도	벽, 바닥 등 구축적인 오브제의 형태로 인한 동선 유도 및 다시점적 경험 유도

4. 현대 상업 공간 실내에 나타난 설치적 오브제의 사례분석

4.1. 현대 실내디자인과 상업 공간

현대 상업 공간의 실내디자인은 공간을 창조적이고 효과적으로 계획하여 판매신장과 수익의 증가를 기대하는 의도적인 창조행위로 기능적인 편리성뿐만 아니라 미적인 공간의 조형화로 고객에게 심미적, 심리적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판매 환경의 이미지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 상업공간은 그 공간만의 정체성을 갖는 개성 있는 표현으로 시대적 특성과 함께 공간의 차별화 개성화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각적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장의 독자성을 꾀하고자 하는 공간 구성 요소로서 설치적 오브제의 성향은 디자이너의 창조적 사고의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디자인 어휘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내공간의 풍부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

4.2. 사례조사의 방법

3장에서 도출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설치적 공간구성이 새로

운 디자인 요소로 대두되는 최근 2000년 이후의 상업 공간 실내에서 설치적 오브제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중심으로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4.3. 사례 조사와 분석

<표 3> 현대 상업 공간 실내의 설치적 오브제의 표현특성 사례분석

설치적 오브제의 표현 사례	설치적 오브제의 표현특성						작품공간특징
	상징적 표현특성		기능적 표현특성		관계적 표현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튜처시스템즈 £24 million / 2003	●	○	●	○	○	●	미래적인 분위기의 나선형의 조명의 물질성을 강조한 구심적 배치로 스토어의 아이덴티티를 설치미술을 통해서 표현하여 시각적 새로움을 추구하며 고객의 동선을 유도한다.
 노이 시게마사 Iris Aoyama / 2002 Tokyo	●	●	●	●	○	○	전통적인 재료의 특성을 살린 조명을 구심적으로 설치하였지만 오브제에서 발생하는 빛까지 빈 공간에 적용하여 구심적, 원심적 물질성과 비 물질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다.
 모리타 야스미치 DBL / 2008 OSAKA	●	●	●	○	○	○	유기적인 라인의 설치적 오브제에 조명을 비춤으로서 일어나는 빛과 그림자를 연출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시각적 새로움을 추구하였다
 Zeech BahisN / Etherlands 2003	●	○	○	●	●	●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근에 패브릭을 활용하여 하늘을 표현한 이 설치물은 초현실적이고 색다른 공간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공간을 에워싸 공간의 볼륨을 한정하며 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스기모토 다카시 마이시타 순간 / 2004 Tokyo	●	○	●	●	○	○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견된 오브제를 사용함으로써 관람자와의 기억의 소통을 통해 공감을 얻고 공간을 형성하며 공간을 오브제화 하고 있다
 모리타 야스미치 Tokia / 2005 Tokyo	●	○	○	●	○	●	식음공간의 공용공간에 위치한 이 설치물은 공간 전체에 분포되며 방향성 및 동선을 유도하고, 시각적 새로움을 추구하며 공간자체를 오브제화 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설치적 오브제가 가지는 물성과 공간에 인지되는 요소에 따라 각각의 현대 상업공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실내 표현특성들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치적 오브제의 다양한 상징적 물성표현을 통해 각각의 공간이미지를 부각하여 관람자의 공감을 얻고, 시각적 새로움을 추구하는 오브제의 표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현대 상업공간에서 이전에 장식적 요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설치미술이 주체적 요소로 작용하면서 포괄성, 적극성이 실내 공간에 좀 더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려는 열려진 사고방식과 조형성으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오브제들은 오브제와 오브제의 관계, 오브제와 마주하는 그 행위와 개념을 도입하면서 실내디자인이 내포하는 기능, 미 중 어느 것 하나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을 구축하고, 기능적 연결, 분절등과 같이 연상에 사용되는 경험적 연상기호들의 집합으로 인식되어 행위를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브제의 새로운 표현들은 현대 상업공간에서 단순히 제품만을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를 넘어서 상업공간이 지닌 각기 다른 정체성, 이미지와 상관성을 가지고 더욱더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박홍, 실내디자인론, 기문당, 1990
2. 서성록, 설치미술 감상법, 서울:재원, 1995
3. 정인국, 근대건축론, 문운당, 1979
4. 홍명섭,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도서출판 재원, 1995
5. 노버트 린튼, 20세기의 미술, 윤난지 옮김, 도서출판 예경, 1993
6. 로버트 휴즈, 새로움의 충격, 최기득 옮김, 미진사, 1991
7. E. Raskin, 건축이란 무엇인가, 김창수 역, 대우출판사, 1983
8. Ernst Fisher, 예술이란 무엇인가, 돌베개, 1984
9. N. Pevsner, 근대디자인 선각자들, 정부영·김창수 역, 기문당
10. 이주은, 설치미술의 매체적 특성과 소통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론, 2000
11. 배정환, 설치미술에 있어서의 공간개념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론, 1994
12. 손은경,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공간·설치적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98
13. 이재석,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Installation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론, 2001